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東亞 참기름 京城西本町 東亞製油所

南方發展對策으로 行政機構一元化企圖

臺灣、南洋、新南群島를統轄

【東京電話同盟】帝國의 經濟機構을確立하고저 本邦品의 海外市場으로서 또資源의 供給地方으로서 南洋方面에의 經濟的進出을要望함에따라 現在의 拓務省 臺灣總督府 南洋廳의 機構組織을再檢討하자는 意見이잇서 拓務省에서는 南方發展의 重要性에鑑하야 昨年來南方 連絡會議를開催하야 여러가지로 硏究中이던바 小磯拓相은 就任以來特히 帝國의 南方國策을 重要視하고根本的對策樹立必要를 痛感하고前日滯京中의 森岡臺灣總督府總務長官과도 協議한바잇는데또近近 小林臺灣總督의上京을기다려同問題에關하야 懇談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小磯拓相은 臺灣總督府南洋廳拓務省及軍部等의關係方面에 有機的連絡을確立함이 南方發展의 根本的要件이라하야 南方行政機構의 一元化를 目標로 具體案을 練하고잇는 模樣인데 臺灣新南群島 南洋群島를 包含한 南方總督을 設置하자는 案도잇스나 小磯拓相으로서는機構改革보다 오히려人的强化에依하야 現機構의機能發揮를要望하고잇는듯하다 따라서 老朽官吏의 强化를꾀하야 南洋長官도 今後는 勅任官級의 人物을 配置하야 大長官制를確立하야 臺灣을 南洋의基地로 拓務省、臺灣總督府、南洋長官三位一體下에 南方發展의 一元化를꾀할것으로보인다

社說

教育者와暴行

一

開城商業學校 某體操教師가 教練中 某學生의 승내를 내것이 어떤 學生의 웃음꺼리로 되어 그學生을 나오라다가 안나오므로 一同을 毆打하야 몇몇學生은 頭部에 傷한 事件이 낫다는것은 本紙의 報道한바와갓다 學生이 尊敬하는 先生을 비웃고、나오라할때 나오지안흔 卑怯은 꾸지질 餘地가 만타。그러나 그러다고해서 學生全部를 毆打하고 그中엔 重傷者까지냇다는것은 教育界의 不祥事다。

二

學生들을 어찌 訓練치 못하야 暴行으로써야 이것을 指導할수잇고 監督할수 잇슬것이라도 毆打를 한다하드래도 잔등케를 치거나 궁둥이쯤 때리는것은 잇슬수잇는 일이다。特히 血氣旺盛한 體操教師가 訓練을 시키다가 뜻대로 안될때 한두개 때리는것은 잇슴즉한일이다。그러나 興奮에 못이겨 銃자루로 全部를 때리고 그中에도 流血의 負傷者를 내것은 教育者的 沈着과理性을 일허버렷다고 안할수업다。同教諭는 이번일은 學生을 사랑하는 때문에생긴일이라하지만 사랑할사록 理性을 일허버리지안코 感情에 흐르지안코靜靜히 說諭하야 自悔하고 나오기를 기다릴것이며 꿋꿋내 안나오면 그感情의 잘못을 말하야 感服케할것이 아닐가。

三

開城商業뿐아니라 小中學을通하야 先生이 兒童에 毆打事件이 만흔것은 거이 公公然한 事實이다。少少한 일에 先生이 兒童을 毆打하고 甚하면 重傷을 입혀 學父兄間에 物論을 이르키는例는 한두번이 아니니 이러고야 어찌教育者의 精神을體得한다하리오。先生이 生徒 兒童을 感情으로 對하는지라 어찌生徒 兒童이 先生을 恭敬하며 마더위하며 따르리오。一部教育者들은 生徒들의 不恭遜을 말하고잇스나 어린 生徒 兒童의잘못을 말하기前에 自己의修養이 不足한것이다 薰陶의責任을 自省해볼것이 아닐가。暴行事件의 大部分은 無思慮하고 感情的인 修養업는 教師의行爲인것이 通例이다。

四

要컨대 教師의 暴行 事件은 教員의 素質이 低下한 所以이니 師範學校의 教育方針도 德育方面보다 知識方面의 教授가 그 大部分임은 이런 弊端을 이르킴 重要原因이 되어잇다。하물며 師範學校도 卒業치안코 臨時教員講習으로 教員된이나 講習科를 거처 短期日의 師範教育을 바든 사람은 一層 德育方面의 修養이 적으니 考慮할 問題다。當局에서는 그러치안허도 不足되는 小學教員을 補充키에 힘이 드는데 素質을向上시키는것은 前途遼遠한일이라할지모르나 그럴수록 素質의조흔 教員을 採用하는것이 教育振興上 重要問題다。教育者의 激甚 矛盾을 促하는 同時에 監督當局의 嚴重한 [illegible]을바라는바이다。

皇太子殿下 宮城에御參內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옵서는 三十日 石川傅育官 伊地知御養育掛를 陪伴시키시고 午前十時三十分 赤坂 東宮假御所를 御出門 宮城에 御參內 大奧에서 天皇陛下께 御對面 二十九日 天長의佳辰을 마지하옵신 御父君陛下께 御祝詞를 言上하시엿다고 拜承되는데 兩陛下 아페서 團欒한 一日을 보내시고 午後三時三十分 宮城御出門 還啓하섯다

靖國神社例大祭

【東京電話同盟】靖國神社例大祭는 九段神域에서 三十日午前嚴肅히 執行되엿다 이날 午前八時 陸海軍兩大臣을 비롯하야 各武官은 軍裝、又는 通常服에 威儀를 가추고 參着 手水及修祓儀가잇슨後 宮司祝詞를 奏한다음 同九時 諸員奉拜裡에 勅使 八束淸貫掌典이 御幣物을 奉持하고 參向하엿다 宮司御祭文을奉奏하고 玉串을 奉奠한다음 諸員奉送裡에 勅使下向、繼續하야 陸海軍兩大臣을 비롯하야 各關係官의 禮拜를마추고 神饌으로 撤한後 同十一時例祭의 儀는終了 一般參拜로 옮겻다

政友會攻防戰에 警視廳警戒嚴重

【東京電話同盟】政友會黨大會當日을 마지하야 二十九日夜來 徹宵各方面情報蒐集 警備에萬全을期하고잇는 警視廳當局은 먼저 中島派가 政友會本部에서三十日早朝六時브터 大會開催를準備한바 이에對抗하야 反中島派는 二階正面 其他에 集會禁止의貼紙를붓치고 一方녀子、椅子等으로 발리케이트를만드러 大會參會者의集會를 阻止하려하고잇다는報道를 接하야 緊張警戒陣을 强化하야 所轄의 丸之內署中心으로 隣接各署의應援을어더 約三百名으로 會場附近을 嚴戒하고 眞一의 護送에 萬全을 期하야 特別警備隊를 召集하야 非番員을 待機시키는等 治安維持上完璧을 期하고잇다 그리고 丸內에서도 午前九時半브터 官房主事、警部、警部補、特高課二十數名이 一方및課等 各課長의參集을 求하야 協議하고 잇는데 不穩한 空氣는 次次로 濃厚해지고잇다 그리고 二十九日檢束된者는 院外團員的共護國團等約百五十名으로 表町麴町 丸之內 上野等 數署에 分散留置되엇다

長驅南鄭을空襲 敵機十一機擊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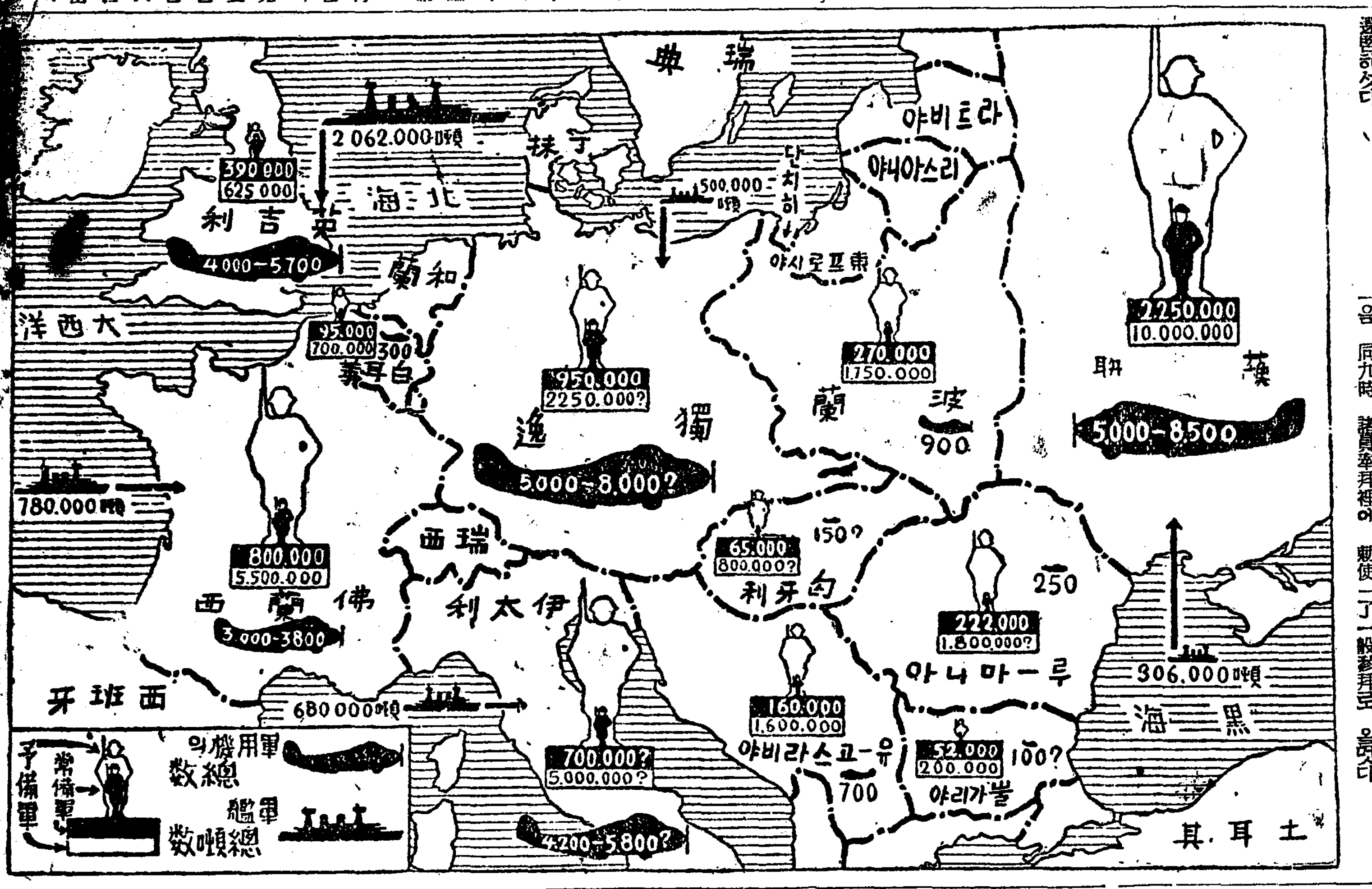
【〇〇基地二十九日發 同盟至急報】外村義雄中尉가 指揮하는銳 木部隊의 〇機編隊는 二十九日 朝南鄭(陝西省漢中)飛行場에 敵戰鬪機가 集結中이라는 情報를 엇고 午前八時五十分南鄭〇〇基地出發 十二時八分南鄭上空에達하야 때마침上空에잇던 敵機二十數機와 激烈한 大空中戰을演하야 惡氣候와 數倍의 敵機群으로부터 襲擊하는 彈雨를 헤치고 激戰二十五分만에 敵機十一機를 擊墜하고 午後零時二十分〇〇基地에 悠悠歸還하엿다

米聯合艦隊 파나마通過完了

【크리스트발(파나마運河地帶)二十九日發】大西洋으로부터 太平洋으로 廻航하는 亞米利加聯合艦隊는 지난二十六日正午부터 파나마運河通過를 開始하엿는데二十八日後八時(東部標準時)艦隊全部의通過를完了하엿다 主力艦의所要通過時間은 三十八時間이라한다

北支防日視察團一行

北支防日視察團(團長沈九麗氏)一行十六名은 二十九日午前八時半京城驛着 卽時朝鮮神宮을 參拜하고 때마침 陸兵場에서 擧行中의 觀兵式을 參觀한後 市內求景을하고午後四時十五分京城發東京으로 향하엿는데 東京着은 五月一日 豫定이다



嘆大戰의歐洲政局

空軍에優勢한獨伊 海軍力이强한英佛

(三) 咸尙勳

이외가티하야 萬一 獨伊와英佛이 戰爭에 訴하다 할것가트면 勝利는 어데잇슬가。먼저軍備의 比較로부터 보면

▲陸軍

英國	常備軍	三〇〇、〇〇〇人
	豫備軍	六二五、〇〇〇
佛國	常備軍	八〇〇、〇〇〇
	豫備軍	五、五〇〇、〇〇〇
計	常備軍	一、一〇〇、〇〇〇
	豫備軍	六、一二五、〇〇〇
獨逸	常備軍	九五〇、〇〇〇
	豫備軍	二、二五〇、〇〇〇
伊太利	常備軍	七〇〇、〇〇〇
	豫備軍	五、〇〇〇、〇〇〇
計	常備軍	一、六五〇、〇〇〇
	豫備軍	七、二五〇、〇〇〇

으로 獨伊側이 優勢하고

▲空軍

英國	四、〇〇〇—五、七〇〇機
佛國	三、〇〇〇—三、八〇〇
計	七、〇〇〇—九、五〇〇
獨逸	五、〇〇〇—八、〇〇〇
伊太利	四、二〇〇—五、八〇〇
計	九、二〇〇—一三、八〇〇

으로 獨伊側이 斷然 優勢이며

▲海軍

英國	二、〇六〇、〇〇〇噸
佛國	七八〇、〇〇〇
計	二、八四〇、〇〇〇
獨逸	五〇〇、〇〇〇
伊太利	一、一八〇、〇〇〇

으로 英佛側이 뛰어나게 優勢하다。現代의 作戰이 迅速決戰主義에 잇다면 空中으로 하는 空軍의 威力이 가장 有效하나 決定的 戰局을 收拾함에는 依然 海軍이 有力하다는 것은 戰略家의 一致한바다 그러므로 英佛對獨伊의 勢力은거이 伯仲하다고 볼수잇스나 兩陣營中 어느것이나 決定的 힘을가지랴면 蘇聯、波蘭、其他群小諸國의 動向에 달렷다 할수잇다。아직 群小諸國의 向背가 完全히 作定되지안헛스므로 斷定的 結論을 내리기 어려우나 萬一 傳하는것과가티 蘇聯、波蘭、羅馬尼、土耳其、希臘等이 英佛側에 加擔하고 西班牙、유고슬라비아、匈牙利等이 獨伊側에 加擔한다면 英佛側이 斷然 優勢하다 안홀수 업다。

◇

그러나 英佛對 獨伊의 戰爭은 兩陣營及 歐洲群小諸國의 向背만으로 決定되지안는다。極東의 日本、米洲의 米國의 動向이 重大한關係가 잇는것은 前番 歐洲大戰時에 鑑하야 分明하다。그러면 日本은 어느陣營에 붓겟느냐하면 獨伊側에加擔할것이 防共協定의 締結國으로 當然하다。그러나 英政界에서 觀測하는바와가티 日本은 支那事變으로 歐洲에까지 손을 대일 意思가 업는것이 大略 判明된 以上 獨伊側에 有利한 資料가 되지안는다。米國도 地理的으로 遠隔해잇는 關係와 戰爭을 回避하려는 意思때문에 容易히 加擔치안흘것이다。그러나 參戰한다면 英佛側에 加擔할것이 最近의 루大統領親書事件만으로도 알수잇스니 獨伊에 有利하지못하다。

◇

그러므로 獨伊가 이以上 英佛을 剛載하는것은 自國을實害하는 不利하다。그러나 戰爭은 가튼 打算과 利害로만 하는것이아니다。前番 歐洲大戰時에도 獨逸은 一擧에 佛國을 擊滅하고 그리고 艦을 東으로 돌려 露西亞를 擊退하고 潛水艦으로 英國을 包圍하야 英國으로하야금 飢餓에 陷케하려하얏섯다。그러나 西部戰線에선 白耳義가 抵抗하야 佛國으로하야금 國境을 守備할수잇는 機會를 주엇고 꿋꿋내 中立을守할줄 미덧던 米國은 參戰하야 獨逸이 一敗塗地하엿다。

◇

獨伊兩國은 英國이 方今 極東問題때문에 歐洲에서 어떤 行動을 하드래도 그것을 默認할 것으로 생각하며 設使 事端이 버러지드래도 地中海上의 空軍을 一擧히 動員하야 英佛의海軍을 擊滅하고 獨、伊聯合軍은 佛國國境으로 들어가 佛國을 단숨에 占據할것으로 생각하고잇다。그러나 어떤 豫想이 마즈면모르거니와 蘇聯이 東에잇는 以上 佛國이 그리 容易히 占據될바 아니오 英國이 極東의 權益을 喪失한다 할지라도 그의 生命線인 地中海가、伊太利의 制霸아래 들때 容易히 擊破되지안홀지니 賢明한 獨伊兩國의 생각대로곳 實現되리라고 밋기는어렵다。(完)

伊國防十個年計畫 百億리라支出決定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政府는 二十九日 비미나레宮에서閣議를 開催하고 뭇솔리니 首相司會下에 國防充實 十個年計畫案을審議한結果 總額百億리라支出을確認하엿다 伊太利國軍의 增强十個年計畫은 經費를 百億리라로하야 兵員機械化部隊擴充資材設備의 增强、植民地防備其他國防計畫을 包含한것인바 政府의說明에依하면 이彪大軍備充實計畫은 伊太利國力增進策인 다음의 三大計畫即

一、伊太利 國力增進 모든部門에 亘하야內政을 刷新하고經濟 其他各部門에 잇서 完全한 强大國家를 完成할것

一、民主主義國家와의 協力을一切 拒否하고 其他國家全部와의 가장 密接한 外交關係를 確立할것

一、陸海軍備를 大擴張할것

等等으로 政府는 以上의計畫은 民主主義國家의 獨伊包圍政策에對한 報復의意味를가지고 立案된것이라고 言明하고 잇다 [illegible] 國際的으로 放送할意向이라한다

伊新年度空軍豫算 二十一億리라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政府는 二十九日 一九三九—四十年度의 空軍豫算은 二十一億리라로 發表하엿다 右는 昨年度의 伊太利空軍豫算에 比하야 九億리라 約四割의 增加로서 여기도 緊迫한 歐洲情勢의 一端을 엿볼수잇다

伊太利 航空將校召集

【羅馬二十八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은 二十八日 空相資格으로 一九三七年三八年三九年의 三個年에 敎育을바든 航空將校及 下士官으로서 臨休 其他關係로 現役에잇지안는 者全部에 對하야 召集令을發하엿다 召集期間은 六十日로 情勢가 緊迫되면 다시 延長할것으로 보인다

히總統演說을 루大統領再反駁乎

【하이드팍二十九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二十八日演說은 루즈벨트大統領의 對獨메세이지를 反駁한것으로 루大統領이 如何한 態度를取할가는 자못注目되는바 消息通側의 傳하는바에 依하면 루大統領은 近近爐邊談話放送에서 히總統演說을 再反駁하야 이를 [illegible]

中支發券銀行으로 華興商銀을設置

【上海二十九日發同盟】中支經濟對策에對하야는 일즉 興亞院華中連絡部를爲始로 現地各機關及維新政府當局에서 愼重히 檢討하고잇던바 維新政府治下의 金融機能은 戰後今日 그機能을喪失하야 企業貿易振興에잇서서 金融機關의復興이 一日도 放任할수업는 現狀이므로 爲先華興商業銀行을 上海에 設置하야 商業銀行으로서의 機能을 發揮케하는一方 이에紙幣發行의 特權을 附與하야 國內民衆에 流通手段을 許容하는同時에 貿易通貨銀行으로서의機能을 發揮케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銀行은 日支經濟提携의見地에서 日本及維新政府折半의共同出資에依하야 日支合辦의維新政府法人으로하고 第三國側이 이에資本參加를要望하야 參加를求할境遇에는 이를歡迎하야 列國共同의線에서서 東亞新秩序樹立의 經濟的礎石으로하려는것으로서 그前途는 東亞의將來를 卜할 有力한열쇠로서 매우重視되는바이다

南總督渡東途中 淸、羅津을視察

【淸津電話同盟】南總督의 日本海經由渡東은 東北滿洲北朝鮮北日本交通路線에 一大反響을 이르킬것으로 期待되고잇는데 南總督은 三十日朝淸津、羅津을視察하야 第一日을마친바 總督의 이번視察은 咸北에서 四回째이므로 北朝鮮三港을 中心한同地官民은一層同地의 重要性을 再認識하엿다 即

一、來七月羅津港의開設로 羅津雄基等一體로한 特別區의 諸施設의 活氣的擴充計畫

二、滿鐵委任中의 北鮮鐵道의一部鮮滿國境路와이에伴하는北鮮線道의擴充及連絡의問題

三、國防道路로서의 海陸交通道路擴充

四、淸津、羅津間交通路設立計畫의促進

五、產業、經濟의發展促進各都市의 擴充等이 急速히具體化될것이므로 日本航路의全面的擴充整備가 豫約된것

그리고 北朝鮮보다도 總督來訪을 [illegible] 新潟港의期待는 매우 큰模樣으로 新潟縣知事 市長以下關係方面으로부터 總督에게 來着待望의 電報가왓다 一方同港과 北朝鮮及東北滿洲 關係方面에서는 이機會를捕捉하려고 서로 情報를 交換하야 從來의施設計畫에 再檢討를加하야 說明陳情하려는等 非常한反響이잇서 總督의 日本海橫斷은 豫想以上으로 日本海湖水化를 促進하고잇다

(寫眞은 南總督)

本社參觀 (三十日)

▲京城地方專賣局員八名(引率者尹承欽氏)

日曜氣配

◇期米 奧地가漸次農繁期에들고 또한受賀期가接近한데다가地場實彈側整理氣分에 人氣가조치못하야 氣配軟調

◇株式 히總統의演說이 잇슨後 도리어 그後의情勢觀望으로躊躇하야雙方이 모두 觀望中이나 依然金融緩漫雜株好調關係로底値는 堅目實氣滑在 氣配堅

大新 六四圓九十錢 東新 一二五圓八十錢 鐘紡 一四四圓七十錢 鐘新 七四圓九十錢 滿業 七二圓九十錢

八面鋒

◇波蘭으로선 廻廊、獨逸으로선 通路、떠지히問題는 去益多端。

◇廻廊을 撤廢하고 通路를만드나 通路우에다 廻廊을두것나。

◇어느편이든지 讓步를하고臨橋나 隧道를노흘일。

◇坐受漁人之功으로 久原氏政友總裁說다음에大分裂을報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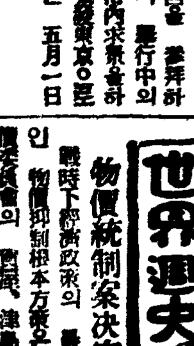
◇總裁가 생기던 分裂이되던與行價値는 全無。

◇京鄕을勿論하고 府邑議戰이 方酣。

◇깨끗한한票를더러피지말일。

今日本紙四面

世界週末



物價統制案決定

戰時下經濟政策의 基本方策인 物價抑制根本方策은 中央物價委員會의 官民、津島、高橋三主査가 일즉原案을作成中이던바 이것이끗나되어 廿七日 中央物價委員會總會에서 正式決定을보앗다 그原案內容은 生產、配給、價格의全分野에亘하야 [illegible] 目的達成과 長期建設이라함에 [illegible] 바 그實施는 國民生活에 [illegible] 影響을 미칠것이다

伊유會談

[illegible] 諸國의動向中 주고슬라비아 [illegible]

英新年度豫算發表

[illegible] 一九三九—四〇年度豫算 [illegible] 二十五日 下院 [illegible]

英、徵兵制實施決定

[illegible] 二十六日 [illegible]

히總統의演說

히總統은 二十八日正午 [illegible]

現代朝鮮文人全集 五回配本

李孝石篇 聖畫

四六版四百餘頁 豪華洋裝函入 一冊定價一、五〇 書類送料、二五

朝鮮文學의精髓를 골라編輯하는 이全集은 回를거듭할사록 滿天下의歡迎을바다우리出版界未曾有의部數를 發行하고잇는바 五回配本으로 李孝石篇을내게되엇다 李孝石氏는 우리文壇에燦然히빗나는한個 별이다。그 洗鍊되고 淸新한 筆致는 새로운 葡萄가터서純粹文學의最高峯이 아닐수 업다。이冊에 收錄된 中篇二篇 短篇八篇·隨筆五篇은 그의生涯를 通하여 가장自信잇는 傑作들로서 篇마다 한個의 玉치오 한個의 眞珠임을 말하여둔다。그리고 이一冊에서 巨星李孝石氏의全貌와 文學的全業蹟을볼수가잇다。

現代朝鮮文學의最大豪華陣
巨彈連發의本全集의大氣焰

本書의讀辭

聖畫新刊評 村民生

朝鮮文壇에서 李孝石氏의名聲은 [illegible]

本篇의內容目次

中篇 聖畫
同 거리의牧歌
短篇 산
同 들
同 고사리
同 粉女
同 人間散文
同 聖餐
同 개살구
隨筆 四溫辭想
同 채롱
同 地峽(外三篇)

一回配本 花冠 李泰俊篇
二回配本 明日의鋪道 李無影篇
三回配本 新開地 李箕永篇
四回配本 동백꽃 金裕貞篇
發賣中

本社最新刊

長篇小說 人生特急 (前後篇大完成) 近日發賣
長篇小說 李舜臣 (李光洙作) 定價一、五〇 〒二五
小說 雙虹舞 (方仁根作) 定價一、二五 〒二五
文藝書簡 紅薔薇필때 定價〇、五〇 〒〇六

發賣所 京城寬勳町一二一 三文社書店 【振替京城九七五六番】

靑春座演劇 五月一日밤부터
從來의보아오신演劇과는類를달니한神秘한名劇!
新銳 林仙圭君作
거리의 牧歌 (목가)
三幕四場
南宮春作 結婚非常時 一幕

東洋劇場
◇晝間映畫◇ 四月三十日ヨリ
獨乙ネロ社特作 M(エム) 名優ピクター・ローレ氏
◎シャーム大野象◎ ◎都會의悲歌◎ ◎幽靈突貫隊◎
三十日ヨリ 東亞映畫·高麗映畫社 協同作品 靑春座名劇映畫化 사랑에속고 돈에울고
コロムビア社超特作日本版 地に潛るギヤング ボール・ケリー ロザリンド・キース主演
京城撮影所作品 五夢女
豫告 望鄕·シカゴ
大衆料金 階上廿錢均 階下十錢均
東劇直營 第一劇場

三陟、通川에大火
兩處五十九戶全燒
强風으로消火에極困難

【鐵原支局】이십팔일 오전열시반에 강원도삼척군하장면추동리(三陟郡下長面楸洞里)에서 난불이나서 맹렬히 부는바람에따라 삼십일호가 타버렷다 동리사람들이 활동한결과 오후한시에겨우 불을잡엇다 또이날오전열한시반에는 강원도통천군남면의 령리(通川郡南面?里)에서도 불이나서 이십팔호가 타버렷다 바람이 몹시불어서 오후세시에 불을 잡앗다 기를대동하고 현장에출동조사중이다

名刹奉恩寺燒盡
損害十七萬圓、原因失火로推定

이십구일 오후한시반경에 광주군 언주면 삼성리(廣州郡彦州面三成里)에잇는 대본산봉은사(大本山奉恩寺)부엌에서 각작이 불이나서 삼시간에 법당에연소되여 칠동팔십여간을 연소하엿다 그런데 이동리는 하등의 소방기관조차 업슬뿐외라 물도몃개의우물밧게 업는판게로그절안에 잇는사람들과일반은 발만동동구르며 화염만 바라보고 잇는형편이엇다가 겨우 발화한지 한시간이나 지난후에야 동면여삼리소방조(?三里消防組)원이 총출동하여 진화에 노력하엿스나 원체물이업서서 어찌할도리가업시사찰경내의 건물로는 따로떠러저잇는사무실한채만남기고 전부소실되엇다 그런데 이봉은사는 지금으로부터 일천일백사십팔년전에 연회국사(緣會國師)가 창설한 절로 상당히 만흔 보물과 유물을 만히가지고잇는 큰절인만큼 그절의 간부는 물론 판게자들은 그것을 구출코저 노력한결과 보물(寶物)과유물등속은전부구출해스나십여위(位)의불상은 구출치못하엿다고한다 이급보를접한 소관파주경찰서에서는팔십여리나 상거해잇는만큼오후일곱시에야 서장이 게원을 대동출장하야 그원인을 조사중이며 소실된 건물파평수는 아래와갓다

大雄殿九間, 冥府殿六間, 萬歲樓十二間, 眞如門十二間, 寮舍室二十四間, 禪雲堂十四間, 香爐閣十間

이외에그안에차여잇든백오백한가마니와 백미구십구가마니가 전소되엇는데 지금 조사에들어난 손해만도 십칠만팔천팔백원에달한다고한다 또방화원인에대하야는 아직까지판명되지는아햇스나 부엌에버린 손들의 담배불에서 인화한것갓다한다 (사진은 봉은사불탄자리)

住持姜性仁氏 談

별항화재에 대하야 주지강성인(住持姜性仁)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어제는마침천장절이라 여삼리에 가서 식에참례하고 막도라오자 이런변을맛낫습니다 아직갓해서는 무어라고 말할여지도 업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요지음독하이킹」오는객이만흘뿐아니라 어제는휴일이라 각처에서 놀너온 사람들이 만엇든만큼 부엌의불을 철저히 하지못한 판게가안닌가생각됩니다 아마 어떤분의 담배불이 부엌에노여잇던 입나무에 버려저서 그와가티된듯도 합니다 여하간에 이모양을당하엿스니 다시건축을 해야겟는데 지금가레서는 무어라고더 자세히 말할생각조차 나지를안습니다 운운

京城地方法院 里見檢事出動

별항봉은사화재현장에는 삼십일오전아홉시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이견(里見)검사가 서 [illegible]

米國訪問蘇聯機 加奈陀서不時着

【모스크바二十八日發同盟】소련(蘇聯)비행가 『코키나키』씨가 조종한 『모스크바』『뉴욕』사이 무착륙비행의 『모스크바』호는 미국동부표준시간 이십팔일오후 여덟시 십오분에 『모스크바』를 떠난후 그동안 중간착륙을 하지안코잇서 동부표준시간 지난이십팔일 오후세시반에는 벌써전항정의 대부분을날러 『카나다』의 『안티코스티』섬우를 통과하엿는데 목적지인『뉴욕』압 『카나다』동쪽『센트、로-렌』만부근에서 드디어 불시착을하고말엇다 소련대사관대리대사 『우만스키』씨는 이불시착되엇다는것을 정식으로 발표하엿다

醉中에"기운다툼"
앗차! 親友를蹴殺
昨夜阿峴町에殺人事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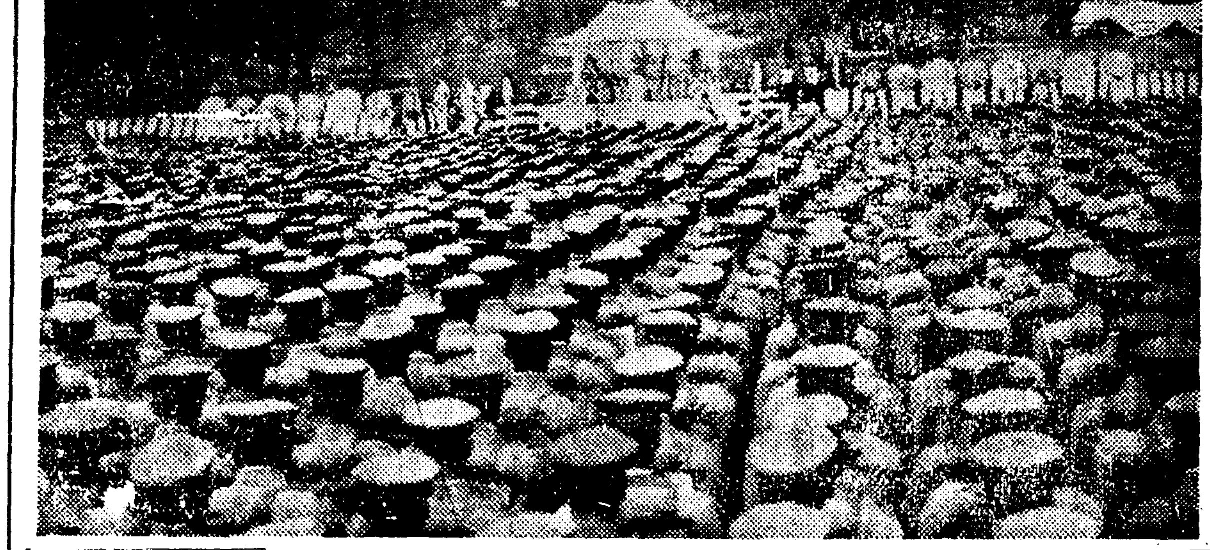
이십구일 밤아홉시반에 부내아현정(阿峴町)육십삼번지의삼호이광운(李廣運)씨의 정원에서 그동리 일백사십칠번지의 유십오호에사는 김기호(金基鎬)(三六)는 역시 그동리오십번지의 사십일호에사는 정남해(鄭南海)(三?)의 머리를차서 즉사시켯다 그두명은 그날그동리 유십이번지 최경길(崔慶吉)의 선술집에서 술을 만히사먹고서 서로말다툼이되어 드디어 이광운씨의 정원으로나가서 서로멱살을 붓잡고 싸움을하다가 김기호가 정남해의 너머진틈을타서 발길로 그의 머리를 찻기때문에 중상을입어 죽게된것이라한다 용산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붓잡아다가 조사중이다

自動車發火
十三名死傷
慶北漆谷郡下慘事

【慶北支社電話】삼십일오전여덟시반경 경북안동(安東)행 조선(朝鮮)자동차 경북제일백십오호가 칠곡군동명동(漆谷郡東明洞)부근을 질주하든중에 갑작이가소린탱크가 폭발하야 불이일어나므로 운전수는 급정거를하엿스나 승객십이명이 서로 다투어먼저 나가랴고 하다가 그중한명은 즉사하고 운전수외십일명은 중상을당하야 방금대구동산(東山)병원에 수용하야 응급치료를하는중이나 모두위독하다

軍官民多數參列
招魂祭執行
京城府主催

경성부주최의 룡산부대초혼제(招魂祭)는 삼십일오전열시반부터 룡산련병장(練兵場)에서 중촌(中村)군사령관 대야(大野)정무총감 심택(深澤)사단장 감자(甘蔗)경기도지사 고교(高橋)경성부윤을 비롯하야 귀족대표 룡산부대 재향군인 청년단 지원병과 학생등 약이천여명의군관민이 모히가운데 자못엄숙하게 집행되엇다 먼저수발(修祓)이잇슨다음 제주(齋主)가 나아가서 초혼식을 행하고 순차로제식을 진행하야 고교(高橋)경성부윤이 제주(祭主)가되어 제문을 아뢰고 재주 제주 유족과 참렬자 일동의 배례가잇슨다음 끄트로 송혼식(送魂式)을 마치고 열한시 사십오분에 식을맛내엇다 (사진은초혼제식장)



阿峴町에티프스

시내 아현정(阿峴町)육십사번지의삽십오호에사는 임정동(林鼎同)(?)은 이십팔일 오후에 몸이몹시아퍼서 의사를 청하여다가 본결과 바진티푸스로 판명되엇는데 이너무를바던 용산서에서는 임씨의집을 소독하는동시에 곳순화병원으로 보내어 치료중이다

和龍縣同胞 視察團來社

만주간도성화룡현월청촌(間島省和龍縣月晴村)에사는 조선동포 수십여명으로 조직된 조선만주 시찰단일행은 이십구일여경성에도착하야 삼십일오전에 장 지웅준(池雄俊)씨의 인솔로 본사에 차저와서 편집국과 공장과 대강당과 기타여러가지시설을 구경하엿다 서울을 구경한다음에 수원(水原)개성(開城) 평양(平壤)봉천(奉天)대련(大連) 신경(新京)등지를 구경하고 오월십륙일에 화룡현에 돌아가기로되엇다

訪日獨親善機動靜

【하노이二十九日發同盟】독일항일친선기는 삼십일아침 열한시『하노이』에 도착하야 이날로 또출발하야 일일아침 대북(臺北)에향할예정이다

未曾有의大規模 紐育萬博開幕

【紐育二十九日發同盟】미국『뉴욕』만국박람회는 첫번대통령인『워싱톤』대통령의 취임일백오십기념일인 사월삼십일에 드디어 개회하게되엇다 이번 만국박람회는 여태까지열린 어느박람회에 비해서도 이배이상의규모가 큰것으로 총경비 일억오

商工大運動會

상공계의 연중행사로 침체여만부민의 시청을이끄는 제육의명절—전경성상공연합대운동회(全京城商工聯合大運動會)는 아프로 한주일을남긴 오월의첫공일인 칠일에 경성운동장에서거행하기로되엇다 대회기일이 박두함을따라 각상점、회사등의남녀건아들은 맹연습에 여념이업는터인데 명일일로서 참가신청도 마음하기로되어 공전의대진용이 결정될터이다 작이십구일까지의 참가신청자수만으로도 이백명을 돌파하고잇는데 주최측인 경성 상공연회에서는 금삼십일을 신청기한으로하엿스나 일요일인관게로 명오월일일오후네시까지로 변경하야 참가신청을접수하기로 되엇다 이리하야신청마감과동시에 후원처인 본사에서도대회준비에더욱분망케되엇다

申請陸續還至
期限은明日까지、벌써二百名突破

兒童愛護週間 無料健康相談

오월일일부터 칠일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국민정신총동원제십삼회 전국애호주간을당하야 조선에서도 조선사회사업협회를 중심으로 각방면에서 여러가지계획이 진행되고잇는데 조선간이보험건강상담소를 일반에게 개방하야 임신부(姙娠婦)및아동의 무료건강상담에응하야 아동애호의 정신을 강조하는동시에 이시설을 더욱돌이게하려고 노력하고잇다 또한경성체신분장국관내의상담소재지는 다음과갓다

京城 太平通一丁目
群山 千代田町一丁目一〇番地
大田 本町一丁目三〇番地
仁川 西京町一、三番地
開城 [illegible]町二四〇番地

巴里西貢間 長距離飛行

【巴里二十九日發同盟】불란서(佛蘭西)비행가 『로벨·조니-』씨는 요전부터 『파리』와서공(西貢)간의 기록비행을하고저 제반준비를진행하고잇던바 드디어 이십구일오후여섯시(일본시간삼십일오전여섯시) 드디어 『코-드론』시문 기를타고 한숨에 서공을향하야 『파리』교외의 『르·불제』비행장을떠나기로결정하엿다 서、에도착하다음에는 동경(東京)까지 날르기로하엿다 서에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으로부터 東邦을거처 黃海에퍼지고 南支那內陸도 低氣壓이合쳐잇다 朝鮮一帶는 날씨가조타 全島의西南에는 안개가끼엇다 九州及廣島以西는 비올모양이고 其他는 晴後不定이다

豫報 今夜도 明日도 晴엇다 흐렷다한다 京城附近은

昨日最高 二三·四度
昨日最低 一〇·五度
三十日最低 一一·六度
同正午 二〇·一度

曆

▲五月一日(月曜)陰三月十二日▲干支戊戌 ▲日出午前五時四十分▲日南中 午後零時三十一分 ▲日入午後七時二十二分 ▲晝間十三時四十二分 ▲月出午後四時五十七分▲月入午前三時 五十四分 ▲滿潮(仁川)午前三時十分 午後三時十五分

故鄕樂壇에野心的大進軍
今夜 第二回新人音樂會
三十日午後七時半 於府民館
入場料五十錢均一
主催 朝鮮日報社

榮譽는東拳軍에
昨夜、拳鬪對抗超盛況
基靑拳鬪軍五對三으로惜敗

朝鮮拳鬪聯盟主催의 第一回三大俱樂部(東拳、府拳、朝拳)對抗拳鬪第三日인 東洋拳鬪會 對 靑年會拳鬪部戰은 예정대로午前會를 이긴후이어 昨二十九日午後七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 열리엇다 斯界의 雙璧이 對峙하는날이라 長安拳鬪팬의人氣를한것이끌러 本社講堂으로서는 처음보는 超滿員의 壯觀을 이루운가운데 開戰되니 게임마다 熱戰그대로의 血戰을演하야 朝鮮의 洗練된 技術을 遺憾업시發揮한끄테 五對三으로 東洋拳鬪會軍이 勝利하야 同聯盟會長高元勳氏로부터 審判委員會局長審判으로 東拳에授與하엿다 (寫眞은 榮譽에빗나는東拳選手)

【東拳】5……3【靑拳】
(플라이級)
○梁政模 判定 韓一男×
△金仁泰 無勝負 申長永△
(밴텀級)
×鄭□洙 判定 李敬烈○
○白連吉 TKO 朴昌鎬×
▼第二라운드二分三十三秒
(페더-級)
×文炳龍 判定 朴敬善○
○劉龍洞 KO 金壽基×
▼第二라운드二分一秒
(라이트級)
△鄭雄鎬 無勝負 李敬鳳△
(웰터-級)
○朴明語 判定 廉興福×

中等籠球리그

日本籠協朝鮮支部主催의 春期中等學校籠球리-그第三日의 各校戰績은 다음과갓다

養正54(2133……77)14龍中
(審判…金容武、尹用鎬兩氏)
徽商28(1414……34)7儆商
(審判…金程信、西田兩氏)
培材29(2910……134)17培材
(審判…李昌徹、李文鎬兩氏)
儆新42(2220……108)18龍成

中等籠球第四日戰績

(審判…鄭有、方元濬兩氏)
普成22(166……152)17大東
(審判…崔濟鏞、西田兩氏)
中東49(2722……99)18仁商
(審判…李性求、方元濬兩氏)
普成26(512……147)21仁商
(審判 丁相允 李忠浩兩氏)
大東34(1222……24)6中

東京大學野球戰

【東京電話同盟】東京六大學野球리-그 慶應對東大一回戰과 早大對立敎一回戰은 二十九日午後零時三十七分부터 神宮球場에서열린바、慶應과早大가各勝하엿다

慶應 1000020000 ……3A
東大 0000000000 ……0

早大 1300004000 ……8A
立敎 3000110000 ……5

(早立第一回戰續)
立敎 3000100010 ……5
早大 0030000200 ……14

都市對抗卓球豫選

京城卓球協會主催의 第八回全國都市對抗卓球大會京城府最終豫選리-그戰第一日의戰績은 다음과갓다

中央中學野球敗退

京城中等學校野球리-그戰第一日의 中央中學對 城東中學戰은 三十日午前十時八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城東先攻으로열린바 오랫만에出戰한中央은 八對一로 惜敗하엿다

城東 0200022200 ……8
中央 1000000000 ……1

九個校가參加
普專主催中等蹴球에

普專主催 第十二回全朝鮮中等學校蹴球大會는 來五月二、三、四의 三日間 京城運動場에서開催될터인데 지난二十八日申請마감날까지에는 昨年度優勝校인培材를 爲始하야 徽新、中東、中央、惠化、協實、普成、培材、大東等의 九個校가 參加하엿다그리고 五月一日午後二時에는 主催側에서 參加校의 主將會議를열고 對陣을 抽籤으로 決定하게되엇다한다

中央庭球大會 一流巨將總登場

朝鮮스포-츠社主催의 朝鮮中央庭球大會는 三十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六十六組(百三十二名)가 參加한가운데 열린바 當日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日順位】
▲1 高商(戰四勝)
▲2 朴榮福(法專)
▲3 朴在植(府)
▲4 朴鍾植(府)
▲5 李慶浩(專)
▲6 李在雨(府)
▲8 羅波(府)
▲9 金洙容(道)

東京城倉洞間 硯村驛新設

철도국에서는 경원선 동경성역(東京城驛)창동역(倉洞驛)사이에 연촌(硯村)이라는 새정거장을 설치하야 오월일일부터 여객의승강과집화를취급하기로되엇다 이곳은 경춘철도의 교차점이므로 그철도와 연락시킬 필요로 새로정거장을 설치하게된것인데 그부근주민들은 종래보다교통이 퍽편리하게되엇다

陸勳相氏美擧

경성부 의선정(義善町)일백륙십번지의삼십륙호 육훈상(陸勳相)씨는 지난이십사일 시흥군수(始興郡守)에게 대하야 소유토지의 일부를 사립 동명학교(東明學校)기지로 자진기부하엿는데 시가 소유면적은 천원어치의 바툼 간이학교(簡易學校)에잇는 그부근의 군당국과 당지유지들은 크게감동되어 그의 동씨의특지에 대하야 교설지를 확장할데 서 [illegible]

봄에 들어서

서울의 교통이 여간 복잡해진것이 아니다 ▲어떤사람이 말하기를 이십여년전의 상해보다는 아주 놀래서말한다 ▲사실 거리에나서면 어찌나 사람이만한지 나도는지 전차는 가는전차 오는전차 발울 들어노흘수가 업시 혼잡하다 ▲자동차라면 여간해서 불러탈수 업다 급한환자가 잇서서 자동차를 부르려 단니다가 나중에는 걸어갓다는일이 보통이다▲그뿐인가기차가 그러코 비행기가 그러코어데라고 단니는것은 여간힘든 노릇이 아니다▲자동차대신에는 옛시대의 물건이되어잇든 인력거가 등장하여 여간뽐내는것이 아니다 그것만 이라도 불편을 얼마큼 덜어주는것이 고마운 터이다▲이러한 교통상의곤란은 조선전체가 크다라케 움직이고 잇다는것을 뚜렷이 집작케함이 잇다▲울적이고 잇는것은 과연 무엇일까?

水原高農軍 學生驛傳에連覇

朝鮮學生陸聯主催의 第五回水原京城間驛傳競走는 三十日에 行한바 그戰績은다음과갓다

▲1水原高農 一時間三〇分三五秒 ▲2普成專門 一時間三四分五〇秒 ▲3京城高工 一時間三七分一七秒 ▲4醫專 一時間四一分四三秒 ▲5京城醫專 一時間四五分五〇秒 ▲6大學豫科 二時間四七分三九秒 ▲7高商

殖銀(洪性□)	4	1	3	銀行(林世錫)
殖銀(朴東夏)	4	1	3	遞信(金世□)
銀行(李□俊)	4	2	1	商銀(小□□)
道廳(任□□)	4	0	2	商銀(李□□)
商銀(黃□□)	4	3	0	殖銀(洪在□)
東拓(李圭□)	4	0	3	法專(川□□)
法專(柳□□)	4	0	2	殖銀(吳□□)
殖銀(林大□)	4	2	0	府廳(若林)
殖銀(高野□)	4	0	2	道廳(中野)
府廳(白□)	4	3	0	遞信(金□□)
專賣(李□□)	4	0	3	商銀(朴□□)
道廳(金□□)	4	2	0	遞信(李□□)
殖銀(崔□□)	4	3	0	殖銀(崔□□)
朝銀(李□□)	4	2	3	拓殖(□□□)
殖銀(金□□)	4	1	2	東拓(李□□)
高商(長谷川)	4	1	0	高商(李□□)
府廳(張□□)	4	1	0	東拓(大□□)
商銀(安□□)	4	1	0	道廳(秋山)
延專(張□□)	4	1	2	延專(金□□)
府廳(李□□)	4	0	3	商銀(金□□)
殖銀(河□□)	4	0	2	道廳(近□)
殖銀(金□□)	4	0	3	專賣(陳□□)
正銀(矢□)	4	0	0	普成(閔□□)
殖銀(金□□)	4	2	3	銀行(李□□)
府廳(尹□□)	4	0	2	商銀(朴□□)
殖銀(小□)	4	1	0	殖銀(崔□□)
朝銀(晉□□)	4	1	0	府廳(李□□)
專賣(李□□)	4	1	0	銀行(張□□)
道廳(井□)	4	0	3	遞信(元□□)
殖銀(金□□)	4	3	2	延專(金□□)
普成(崔□□)	4	2	2	普成(崔□□)
東拓(朴□□)	4	2		普成(宋□□)

【第二回戰】
遞信(洪承杰)	4	0	專賣(金南斗)
遞信(孫觀星)	4	0	高商(金炯殷)
專賣(金福金)	4	1	高商(吳山)
高商(房□□)	4	1	高商(□下)

明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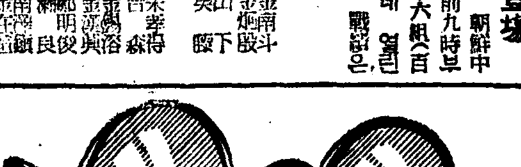
▲籠球＝日本籠協朝鮮支部主催春期中等學校籠球리-그第五日 ▲正對醫中 徽文對養正 ... 大東對普成 午後四時以上全部安國町徽文小學校 入場料＝一般十錢 學生五錢

首陽商店
首印系 絹織絲 毛糸 文化ヤン 半 오-시 カタン系 各種毛系 手藝品一切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慢性 モヒ中毒
元北海道帝國大學醫學部敎授 太黑薰先生創製
無苦痛 根本療法
オネポンターヂン
發明完成
從來의方法과달리 無苦痛이며 ...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府本町二丁目

平壤府本町六番地 大學堂眼鏡店



各眼科病院處方 眼鏡責任調製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赤十字病院眼科 龍山鐵道病院眼科 龍山陸軍病院 江頭眼科醫院 金井眼科醫院 荒川眼科醫院 仁川岩永醫院
全鮮各道官私立病院眼科御指定
京城帝國大學御用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③二三七五 振京一一二九
(眼鏡・雙眼鏡カタログ送呈(要二錢))

淋疾 化學療法特効劑
パラミード (缶入)
パラミード는淋菌撲滅의最新發見 ... 淋疾은주사팔
近世藥學界의驚異的發明 「パラアミノベンゾルスルフオンアミド」의 最良製劑입니다.
錠劑 (○三)二〇錠 一〇〇錠 五〇〇錠
粉末 二五瓦 五〇瓦 一〇〇瓦 五〇〇瓦
注射液 二cc 五管 二cc 一〇管 二cc 五〇管
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支店 大阪 奉天

當選謝禮
利原金融組合
組合長 馬承執
監事 崔河龍
評議員 金聖述 李鳳運 金鍾變 徐曾錫 千鍾乙 李萬烈 李炳世 鄭容漢 高茂一 權南

當選謝禮
今般不肖等이 ... 當選되엇음을 ... 紙上으로 謝禮
昭和十四年四月十五日
丹城金融組合
評議員 [illegible]
監事 [illegible]
發衛委員 [illegible]

귀여운아기의보배 ベービー散
아드님따님의영실의님

골으로하게 자라나가는 바라시는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애들의 건강에주의하셔야합니다 더구나 요새와같은 환절기에는 흔이어린애들이 밥투정이나 반찬투정을 하면서 밥을 잘먹지않고 몸은 점점쇠약해가며 설사나 또는 거품이 끼고 粘液이석긴변을누기 쉬우나 이것이 위장에 고장이생긴까닭이니 다면 설사만막히는약을 쓰시지 마시고 반드시 어린애의체질에 맞은小兒專用의健胃整腸劑「ベービー散」으로써 치료하여주시면 조금도 부작용의염려없이 속히 낫게되야 튼튼케됩니다 만일 설사만속히그치게 한다면 배속에는 설사가나오게된고장과 부패물이그대로남어있어 그독기로말미아마 무서운 예병을 발병하기쉬우니 다스르며 서서히설사를 가란치는어린애들의신영 남인「ベービー散」으로 치료하시여야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애를길으시는가정에서는꼭本劑를 常備하여두시고 늘어린 애들의위장을 보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어린애들의푸른대변 힌대변과 버큼잇는변을 놀때 소화불량헛배부른데 식욕이없는데 위장이약한데 설사등에 특효합니다
参 包入…貳拾錢
五 包入…参拾錢
九 包入…五拾錢
貳拾包入…壹圓
全道有名한藥房에잇음
發賣元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振替 京城 一六番

不過七十圓滯納으로 五萬餘坪公賣運命
開豐郡鳳東貯水池區域에서
住所不明者多數로滯納處分配達도不能

【開城】개풍군봉동면(鳳東面)에 잇는 저수지(貯水池) 몽리구역은 흥왕(興旺) 도평(都坪)·지금(只金)·봉동(鳳東)·등사개리로서 도당국에서는 소화팔년구년 두해동안 오만여원의 공사비를 드려 부근산에 사방공사와 식목을 충실히하야 그미테 잇는 오만여평의 전답은 수재를 면하게되고 흉황한 옥답으로 화하게되엇는데 전지방부담금중 팔할은 총독부에서 일할은 경기도에서 각각 부담하고 남어지일할을 몽리구역오백여명의 지주가 소화십삼년도부터 십오년간에 분해서 세금으로 납부케되엇는데 그중 체납자가 칠십여명의 다수로서 불과칠십여원의 세금때문에 이들의 소유오만여평이 불원간 체납처분을 당하게되엇다 그래오는 오월십일일 오전구시 그군청내무과에서는 도세계(道稅係) 유진성(劉鎭晟)씨 담임하에 공매를 집행하리라는데 그중납세자의주소불명으로 억울한 처분을당할 지주가 상당히 만타는바 우편이 배달되지못하야 반송된자는 다음과갓다한다

開城 京町 三二三 宋昌吉
同 北本町 一六七 白南基
同 元町 三四三 金道楠
同 東本町 五五三 梁在順
同 滿月町 六七 金東鎬
同 池町 六六四 李聖淑
同 宮町 一三一 朴承天
同 南本町 三〇四 金基成
同 元町 七九四 朴貞烈
同 元町 三六〇ノ二 禹丹陽
同 元町 六七五 朴元淑

외 상십여명의 주소가 불명하야 납세우편이 배달되지못하고잇다한다

大部隊(一千二百餘名)또越境
今年度集團移民은이로決算

【安東縣】지난이십팔일 오후입곱시 압강수전수몰지주민, 일천이백사십팔명이 안동역을 통과 목단강성(牡丹江省) 빈강성(濱江省)으로 이사갓다 이번에는 광성(廣城)에서 일백칠십오호구백삼명과 벽동(碧潼)에서 팔십오호사백칠십오명중 연기한자가잇서 도합일천이백사십팔명이라는바 금년도의 만주이민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한다

이날 열차는 다섯시이십오분에 안동역에 도착하여 협화회와 조선인 국방부인회, 선공서에서 만선척식사원 개척총국원등이 출영하엿고 부인회원은 준비한『변도』와 차를 나노아주고 태성당원장 백원현(白元賢)씨는 차멀미에 고민하는사람과 기타환자에게 일일히 진찰하여 시약하는등 만주에첫발을 드려노흔 그들을성심으로 환영하엿다

일곱시십분 기적소래가 나자 협화회김태경(金泰敬)씨의 발성으로 그들의행복을 원하는만세를 호창하엿다

【營口】경상남북도와 평안북도장성군 압록강 수전수몰지에서 이주하는 개척사 이백삼십오호 칠백팔십일명은 이십육일 오전두시반에 무사이 영구에도착하엿는데 역에서준비한임시휴게소에서 밤을지내고 즉시 목적지인 영흥촌(榮興村)으로향하엿다 이들은 만선척식의알선으로 이미 이천호의동포가 거주하고잇는 영흥촌에 이주하게되므로 별로이역에서 늣기는서름을 맛보지안흘것이다

【奉天】만선척식 봉천지점(支店)관내의 집단이민으로 금년도의마즈막인 금주성반산현영흥농촌(錦州省盤山縣營興農村)으로가는 개척민일행삼십호(慶南七十戶、慶北三十戶、平北三十三戶)칠백팔십일명은 총독부와 소속군면직원 인솔로 안봉선(安奉線)경유 지난이십오일밤 아홉시십분 소가둔(蘇家屯)역을 통과하야 영구(營口)로 떠낫는데 일행은 모두원기왕성하엿고 이십륙일새벽에 영구(營口)에 하차즉시로 하북연락선(河北連絡船)을 가라타고 목적지로갓다

協和會延吉縣聯 第一日의協議會

【間島支社發】만주제국협화회연길현연합협의회(協和會延吉縣聯合協議會)의 제일일회의는 예정과 가티 지난이십오일 오전아홉시 반부터 연길공회당에서 만하이십분회로부터 출석대표 삼십삼명과 중앙본부정리과장(中央本部整理科長)등 관계자다수참석리에 진지강사무장의 개회사로서 열리엇다 일만양국기와 협화회기에대하야 경례와 일만양국가합창 임홍민조서봉독 치어봉독이 끗나자 육성본부 부본부장의훈사가 잇슨후 열시오분에 전원이 삼십분만 현민를 대표하야 정국신사(靖國神社)를 향하야 묵도를하고, 휴회하엿다

열시삼십분부터 속회하고, 출석대표를전령 의장에 연길가대표 야촌일랑(野村一郞)부의장에 위란조(葦蘭村)대표 원장령(袁長榮)서기장에 진지강 사무장을 선거하야 의사를진행하기로 되엇다 선서문기초위원과의안정리위원을 선정한다음 전전진(前田進)씨의 긴급동의로 정국신사의 영령에 대하야 일지사변전몰장사의 영령에대하야 묵도한다음 진지강현사무장으로부터 전년도연길현연의경사찰처리경과보고와임시협련의경비와 사업경과보고가잇슨다음 열한시이십오분에 휴회하엿다

오후한시에 야촌(野村)의장으로부터 속회를선언하고 의사에들어가 각위원의 …… 잇섯고 그외 각지대표의 요망에대한 답변이잇슨후 오후 여섯시에 제일일회의를 마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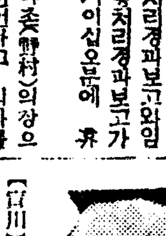
安東市聯協議會

【安東縣】시민생활에 절실한문제를주어서 검토중인 안동시연합협의회의는 지난이십사일부터 열려 연사일간에 육십사건의안을심의하고 무사히 마치엇는데 의안심의경과는 다음과갓다

一、解決議案二十四件
二、市本部一任議案 十六件中三件은決議 一件은保留에回附
三、省本部上提議案八件
四、保留議案三件
五、撤回議案三件

최종일인 칠일오후세시에 중앙본부의 의장의 인사와 중앙본부의 회의에대한 소감발표와 다전(多田)시본부장의 인사가 잇슨후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엿다

눈물의巨金喜捨
宣川朴女史의敎育熱



【宣川】고녀의 몸으로서 초등교육에 써달라고 자진기부를하야 일반을감격케한뉴-쓰 선천군 태산면 원봉동(台山面圓峰洞) 박성화(朴聖化)(六六)여사는 사십당년에 남편을 여히고 치척합도업는몸으로 남의소작을하면서 오직 근면저축하야 오늘에는 남부럽지안케 지나게되엇는데 피눈물의결정인 삼천원을 태산면소학교학급증설기금으로 써달라고 선천군으로 정식신청을하엿다 선천교육계를 위하야 특지가가속출함은 실로경사스러운일이라고 일반의 감사와 칭송의소리가놉다 (사진은 박여사)

襄陽地方에怪候

【束草】양양지방은 지난이십팔일부터 맹렬한 바람이 일기시작하야 이십구일까지도 계속되고잇는데 모짜리와 밀보리등농작물에 피해가막심하여 일반농가에서 매우우려중이다

金錫源少佐 講演會開催

【開城】개성군사후원연맹에서는 북지전선에서 혁혁한 무훈을세우고 도라온 우리의부대장 김석원(金錫源)소좌를 초빙해다가 오월일이 양일간 군사강연회를열기로되엇다는바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갓다

(時刻)	(會場)	(聽衆)
一日午後二時	商業校	中學生
午後七時	社會館	一般府民
二日午前十時	宮町小校	初等上級生

洋靴業者들檢索
無許可皮革使用者를摘發

【慶南支社發】전시물자수급조절을위하야 저간에 피혁사용을 제한하야 양화제조업자는 적지안흔 타격을 밧고잇다함은 누보하는바로서 그동안 양화제조업자들은 스토의 사용허가를어더 근근히 생활을 하여가는현상이다 그런데 부산부내의 양화제조업자 가운데에는 피혁사용허가를 밧지안코 비밀리에구두를 제조하고잇다는 소문을들은 부산서와 북부산서 경제경찰계에서는 지난이십팔일 계원을 총동원하야 부내각양화상을 일제검색하고 제조중의 구두전부를 압수하엿다 그위반자는 부산서관내에 십이명 북부산서관내에 사명인데 엄중취조를한후 엄벌에 처할터이라한다

深夜에차저온손 意外强盜로豹變
洪原郡에서兩處襲擊

【咸南支社發】주인을 찻고 들어가서 협박하는 색다른 강도(强盜)가하르밤에 두곳이나 습격-지난이십팔일 오전령시쯤홍원군운학면 차상리(洪原郡雲鶴面車上里) 박근집(朴瑾集)의 집 부엌 문아페서 어떤사람이 주인을 큰소리로 차지므로 자고잇든 그집주인녀자김고분(金古粉)이 문을 열엇든바 그순간 약삼십세가량된 노동자비슷한 청년이 쑥들어오며서 『돈을 내라 그러치안흐면 죽이겟다』고손을주머니에너흐면서협박하엿다 이리하야그집에잇든돈전부십칠전을 내노흐니 바더가지고 바람과가티 가버렷다 이날밤조금후에 그집으로부터 서북쪽약 십오정가량되는곳 농업김당배가 개 김경래(金庚來)의 집에 또 괴한이 나타나서 역시 주인을 찻고서문을열자 들어와서 먼저 외꼭가튼 수단으로 현금십원오십전과 『가찌도끼』두갑을 빼아서가지고 다라낫다 이괴상한 강도는 그길로 함주군 덕산면(德山面)지방에 들어온듯하다고하는데 함흥·홍원과 신흥등 각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엄탐하고잇다고한다

平壤工學校合格者

◀電氣科

金林正治 大澤雅宏 瀬野尾義男 惠古昌明 津藤長利 蒲生茂司 平山信之 武藤雄枝 福田勝 宮城豊志男 谷本明 貴島友德 原田昭 一宮正喜 安藤勇 小島重吉 木村良一 山本恒夫 篠原治之 小原敏郎 金億衛 金宗基 朴雲默 朴濟寅 金紗燮 金瀛杰 張承淑 李孝鎭 姜政基 韓元哲 邦秀逸 姜鳳健 金煥範 重昌萬 李光來 朝千大永 金鏞律 下川貞夫 山中武雄 池田敏男 瀬田次男 井武登 相良七雄 安重謙

◀鑛山科

前塚光夫 八木義和 中村仙史 佐藤實男 稻垣保夫 野口俊熙 中野啓 朴光憲 金德善 金鍾楨 黃淳 延任權 鮮于仁培 李相裕 方燕瑞 金仲淵 盧炳柱 林淑仁 姜炳赫 李仁植 金履榮 朴根秀 崔顯祥 梁俊景 金濟敏 大久保昌 南甲勇 加茂敏明 平賀卓 中田務 大西一正 佐藤政利 坂田晋一 李炯璨 木村男二 申千秀 邊仁燮 鄭克鉉 李周亨 鈴木俊一 石橋浩市 池田芳包 吉野元一 國尾芳助 (以上八十四名)

沙里院農業學校 校舍新築祝賀會

【沙里院】조선내에서 농업학교로는 제일처음으로 설립되엇던 해주농업학교를 사리원에 이전하야 신축낙성축하식을 이십일오전 열한시부터 동교강당에서 관민유지 다수참석한가운데 성대히 지내다

南船北馬

▲평남 수천군에서 발송한 //도, 농사시험장 견습생 모집에 관한건//의공문서류는지난이십구일에 관하각면에 배부되엇다는바그내용중 추천기일은 벌써지나간 일까지엿다고 ▲더구나 그발표일자를보면 사월삼일이라고써 잇슴은 더욱 알수업는일로써 실수로 밋기도 어려운일인데 ▲여하턴 조흔 기회를 엇갓게 놋치엇슴으로는 모처럼 계획한 도사업회의 의도에도 어그러지는 유감이나 ▲차라리 그가튼 휴지공문일진댄 그만두고 용지절약이나 하엿스면 갓지못하다고 일반의 이야기꺼리가 되어잇다 (舍人)

戰勝時下天長節 各地의奉祝盛典

平壤 전승의 봄이무르녹는때에 마지하는 천장의가진(佳辰)을 봉축하는 군도평양의 관병식은 이십구일 오전십일시부터 창광산(蒼光山)밋 보병제칠십칠연대영정에서 재양부대의 정예와 부내전문 중등학교 구교의 건아군 삼천명을망라하여 장엄하게 집행되엇다 (사진은 분열식광경)

【平南支社發】조선기독교평양연합회(朝鮮基督敎平壤聯合會)에서는 천장절(天長節)봉축예배를이십구일 오전열시부터 부내광성중학(光成中學)운동장에서 오백여명교도가 모히여성대히보앗다

大田 충남도에서는 지난이십구일 오전열시부터 도회의실에서 관민다수참석하에 천장가절 배하식(天長佳節拜賀式)을 거행하엿스며 동열한시반 공회당에서 관민수백여명 참집하에 축하연을 열엇섯다

沙里院 사리원에서는 이십구일 오전열시를기하야 관공청 직원일동과 시민을 합한 오백여명이 신사에 참집하여 성수(聖壽)만세를 기도봉축하고 계속하여 각중등 초등학교생도 삼천여명도 봉축기도를 드리엇다

舍人 지난 이십구일 성전제삼년의 천장가절을 마지한 봉남 수원군에서는 각면지한 각부락별로 애국반 정신총동원연맹을 중심으로 요배식, 근로봉사작업등 행사가 각지일제히 거행되엇다는바 이날사인장에서도 아침여덟시 정각에는 대성상회(大成商會)자이렌을 통하야 알려진 국민봉축시간에 황거요배가 시행된것을 비롯하야 오전열시 사인소학교에서는 관민유지와 동교생도등 칠백여명이 정렬하야 국기게양 국가합창……등 순서에따라 봉축배하식을 거행하엿고 계속하여 동교준비의 다과식으로 공전의성황을 일우엇다 그리고 사인면에서는 궁재남군이 석우 안국리등 근로봉사단을 총출동시킨것을 필두로 직원이 총동원하야 각부락 보국작업에 철저한지도를 가하엿고 오후네시경에는 다시 충령산상에서 봉축연까지 개최하엿다

天安 천안군에서는 지난이십구일 천장가절을당하야 작기와가티 봉축제와 배하식을각각성대히 거행하엿다

午前八時 南山神社에서奉祝祭 同十時 敎城小校에서拜賀式 同時榮町小校同上 同時旭町小校同上

長湍 천장의가절인 지난이십구일에 장단군에서는 오전구시에 장단군청을비롯하야 경찰서각학교에서는 내빈다수참석한가운데 먼저 국기게양 국가합창 궁성요배 칙어봉독 황국신민서사 제송의순서로 식을종료한후 냉주를들어 성전제삼년에 마지하는 천장절의가절을 봉축하엿다

丹城 지난 이십구일 사변하의 무궁 황실의 흥륭을 봉축하야 성수의 만세를 봉축함과 동시에 진충보국의 정신을앙양하고 만민보민의 실천거하야신동아건설에 매진할국민의 자각을 전고케 하기 위하야 산청군(山淸郡)에서는 관공서와학교는 물론 전군각부락까지 성대한봉축식을 거행하고 식순을마친후 시국강연 봉사작업등으로 이날 하루를 의의잇게 지내다

라디오프로

三十日(日)

▲午後六時 (平)童謠 敎會里主日學校生徒 伴奏徐光玉 指揮金環璇
▲同六時二五分 產業뉴-스
▲同六時三五分 修養講話 佛學種相老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新民謠 一、노들江邊 二、방아打鈴 三、梁山道 四、新高山打鈴 五、靑年歌 六、사발歌 七、金剛山打鈴 郭明月 伴奏京城放送管絃樂團
▲同八時 歌謠才談『八道求景』 金鋼一 朴天福
▲京畿歌謠 一、遊山歌 二、제비歌 三、船遊歌 四、小春香歌 田山紅 崔錦翠
▲同九時 獨唱 一、歌劇『루스티카-나』中에서 어머니도아시지요…마스카-니作曲 二、백국새…아르네作曲 三、歌劇『아이-다』中에서 이기고돌아오라…베르디作曲 四、그집압…玄濟明作曲 五、니-나의 죽엄…페르골레지作曲 六、歌劇『토스카』中에서 노래로살고…푸치니作曲 吳敬心 피아노伴奏金鋼勳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東)人事獨逸新聞記者代表▲同七時三〇分(東)落語▲同七時五〇分(東)琵琶▲同八時一五分(東)講談▲同八時四五分(東)歌謠曲▲同九時五分(東)浪花節

五月一日(月)

▲午前六時一〇分(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氣象通報 料理製法 日用品時價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民謠曲(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健康의五月』(一) 日光浴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月例訓話『조흔習慣을 기릅시다』 梁柱三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五分 週間情報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第十三回兒童愛護週間實施에對하야』 總督府事務官 崔夏永
▲同七時四〇分 講演 原始人의藝術生活 李克魯
▲同八時 南道歌謠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吳翠仙 許蘭秀
▲同八時三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李承煥 伴奏崔壽成
▼正八時四五分 歌謠曲(레코-드)
▲同九時 連續라디오小說『綠園地』(一) 李光來作 宋在杏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뉴-스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氣象通報 明日豫定 翌日獻立
▲同一〇時一〇分 初等國語講座(一二)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支那語講座(十)▲同七時二〇分(東)아침音樂(레코-드)▲同一〇時二〇分 家庭時間▲同一一時(福)小學生時間『尋一』▲午後〇時五分(東)하몬드오르간獨奏▲同二時小學生時間『尋五』▲同三時(東)家庭時間▲同三時三〇分 歌師時間▲同六時二五分(釜)講演▲同六時五五分(東)커-렌트토픽쓰▲同七時三〇分(城)講演▲同七時四〇分(東)講演▲同八時(東)室內樂▲同八時四〇分(東)常磐津

不動産公賣公告

番號	土地所在	地目	地積	所有者住所	氏名
一	鳳東面都坪里六八一	田	四三四坪	開城府京町三二三	宋昌吉
二	同 鳳東里九二	畓	一、三四〃	同 北本町一六七	白南基
三	同 芝金里五一七	[illegible]	[illegible]	同 元町三四三	金道楠
四	同 里四七九	[illegible]	[illegible]	同 東本町五五三	梁在順
五	同 里二三四	[illegible]	[illegible]	同 滿月町六七	金東鎬
六	同 里二三五	[illegible]	[illegible]	同 池町六六四	李聖淑
七	同 都坪里五三三	[illegible]	[illegible]	同 宮町一三一	朴承天
八	同 里八四一	[illegible]	[illegible]	同 南本町三〇四	金基成
九	同 里六七七	[illegible]	[illegible]	同 元町七九四	朴貞烈
十	同 里八四三	[illegible]	[illegible]	同 元町三六〇ノ二	禹丹陽
十一	同 里六八三	[illegible]	[illegible]	同 元町六七五	朴元淑
十二	同 里八一七	[illegible]	[illegible]	開城府池町[illegible]	張鵬漢
十三	鳳東里一〇四	[illegible]	[illegible]	鳳東面大鳥里[illegible]	崔昌東
十四	同 芝金里八一三	[illegible]	[illegible]	同 池町一八	吳好成
	同 里八一四	[illegible]	[illegible]	同所	同人
十五	南面峽石里四三九	[illegible]	[illegible]	鳳東面鳳東里	三渡邊一壽
	同面 同里四四〇	[illegible]	[illegible]	同所	同人
	同面 同里五一五	[illegible]	[illegible]	同所	同人
	同面 同里八六五	[illegible]	[illegible]	同所	同人

前記不動產을來五月十一日午前九時當廳에서公賣함 買受希望者는當廳備付入札人心得書及現地熟覽後入札할事

昭和十四年四月二十八日

開豐郡守 李允世

證告

恒常格別한愛顧를밧자와實로感謝하옵나이다 그런대 今年의商界는 아시는바와가티 各方面으로多端을極하고잇기때문에 商品入手가 어려울뿐아니라 價格도 騰貴만해가므로 業者間에 大端히 困難을밧고잇는바입니다 그런대 多年 愛顧해주시는 顧客諸位에게 奉公할時期임을 아옵고 前年보다도 製產을늘여 需要充當코저 一意專心하야 確實한價格은 勿論, 忠實한納品에邁進하고잇사오니 모조록 倍前의指導와 下命이잇기를 懇願하나이다

004962

合名會社 坂井帽子店
京城南大門通三ノ二四
電話本局三七六〇番 振替京城八六八一番
工場 京城北米倉町九〇番地 電話本局六五六九番

X光線完備
大京齒科醫院
電話光(3)三〇三〇番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臟外科 肛門外科 一般外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釣具 網投
京城南大門通二丁目
久 網久商店
電話本局②六二五番 振替京城一二七〇六番
漁具一式 なら何でも 揃うて品質 優良·在庫豐富
繼竿 一間半三本繼 二十五錢ヨリ
投網(麻絲製) 五分目二尋 十三圓五十錢
漁具の栞(型錄)呈上 業者に限りて『卸賣商報』

本日 マクニン デー
國民의七割까지도蛔虫이잇다
잇지말고退治하라 每日服用하야
1 効力强烈副作用과中毒作用이업다
2 死虫으로排出하므로不快感이업다
3 一回의多量服用連續服用共히安全
4 下劑의必要업고달아서먹기쉬웁다
먹기쉽고 잘듯고 害가업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五月一日封切
原作 加藤武雄 監督 佐々木啓祐
夏川大二郎 三井秀男 笠智衆 奈良眞養 近衛敏明 木暮實千代 川崎弘子 田中絹代
主題歌 コロムビア·レコード
松竹大船豪華巨篇
春雷 前篇 愛路篇 後篇 審判篇
前后篇一擧上映
北海の子
ジョージ·ラフト ヘンリイ·フォンダ ドロシイ·ラムーア エイキム·タミロフ ジョン·バリモーア
監督 ヘンリイ·ハサウェイ
血腥い殺伐な北海の子等の間に秘められた哀れにも床しき愛と鬪爭の物語り。
明治座

忠臣藏
連日連夜超滿員
破れんばかりの盛況!
御家族連れで是非! 忠臣藏を
若草東寶映畫劇場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林繁藏 副頭取 渡邊彌幸
資本金六千萬圓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九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잇습

고초가루
唐辛子製粉元 海陸物產問屋
今光信商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野田新吾

朝鮮信託
貸出業務案內
不動產擔保貸付 有價證券擔保貸付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支店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各種ミシン 卸專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九九
ミシン及分品部 萬稔ミシン商會
電話本局②四五八三

銀幕과舞臺의惑星網羅!
劇團高協 公演
演技者 (男) 沈影 徐月影 柳玄 李圭高 宋冠 太乙民 裵勇 李創玄 朱仁奎 朴齊行 朴昌煥
(女) 盧載信 池季順 李吉寀 金吉鳳 朱美鈴 李寶金 劉桂仙

巡演日程
五月二日 大田 大田劇場
三日 全州 帝國館
四日 裡里 裡里座
五日 群山 群山劇場
六日 羅州 松汀里
十一日 木浦 木浦劇場
十二日 光州 光州劇場
十五日 麗水 麗水劇場
十八日 順天 順天劇場
二十日 休
二十一日 晋州 晋州劇場
二十四日 釜山 大生座
二十六日 大邱 大邱劇場
二十九日 尙州 尙州劇場
六月一日 金泉 金泉劇場
四日 休
六日 淸州 淸州劇場
八日 禮山 禮山劇場
九日 安城 愛園劇
十二日 水原 水原劇場
十四日 仁川 愛館

學生세상

素月과 靑先生

白石

나는 며칠전 岸曙先生님한테로 素月의 생전 손에서 노치안턴 「노트」한책을 빌려왓다. 장장이 「素月」의 詩와사람이 살고잇서서 나는 이책을 뒤지면서 이상한 흥분을 금하지못한다. 대부분이 未發表의詩요 가끔 그의 述懷와斷片이 두세줄씩 散文으로 적히우고 가다가는 생각이 막혀던지 素描가 나오고 漫畫가 나오고 한다. 술파술 글자와글자를 분간하기 어렵게 지우고 고치고 내여밧고 달어부치고한 이詩들은 全部가 故鄕, 술, 債務, 人情 가튼것을 읇조린것인데 그가운데 異色으로 『제이·엠·에쓰』라는 詩가잇다.

제이·엠·에쓰

平壤서 나신 人格의 그당신님 제이·엠·에쓰
덕업는 나를 미워하시고 才操잇든 나를 사랑하섯다
五山계시든 제이·엠·에쓰 四五年 봄만에 오늘아침 생각난다
近年처음 꿈없이 자고일어나며
얽은 얼골에 쟈그만키와 여윈몸매씨는,
달은쇠가튼 타는듯한 눈동자만이 유난히빗낫섯다
（一行略）
素朴한風采, 仁慈하신 엣날의 그모양대로
그러나, 아-술과 계집과 利慾에 헝크러저十五年에 허주한나를
웬일로 그당신님, 맘속으로 차즈시노? 오늘아침,
아름답다 큰사랑은 죽는법업서
記憶되어 恒常가슴속에 숨어잇서
밋처 거츠른 내良心을 잡재우리
내가 괴롭은 이세상떠 나는때까지。

衛心 5, 26, 夜當라하엿는데 시방으로부터 六年前이다. 『五山』學校를 나오고 제이·엠·에쓰라는 『이니시알』로된 이름이 靑岡權先生님이신것은 물을것이다. 不出世의天才 素月은 五山學校에서 四年동안 이靑先生님의 薰陶를입엇는데 이詩人은 그 높게 우럴어 존경하든 靑先生님께서 하로아침고요히 그마음속으로 차저오신 때 懷念하야 쪼그리고 안저 머리를 들지못하고 號哭하엿든것이다. 素月은 이때 그고든 州郭山 배가고 차가는곳」인 고향을 떠나 山邑 寧邊南市에서 돈을모흐라고 애를쓰든 때다. 素月이 술을사랑하고 돈도 모흐라고 헤스나 靑先生 의입사내에 울으는데 거짓을 가지고 돌은일은 업다하였다 그러되 이미 그고요하고 맑어야할 마음이 밋처 거츠럿든 탓에 그는 이 凝視하여 업드려 이러케 號哭하는 것이다.

素月은 五山學校때에 靑先生님을 내여노코는 무엇에나 憧憬을 하엿다. 靑先生님은 이러케 才操잇는 素月을 그 眞摯하신 우슴을 띠우고 머리를 쓰다듬어 사랑하신 모양이 눈에 보이는듯한데 五山을 단겨 나오자 누구에게나 그러듯이 이天才詩人도 그 마음이 흐리고 어두울때 역시 얽은 얼골에 쟈그만 키와 여윈몸맵씨」의 靑岡權先生님을 차저오시엇든것이다.

學生作品

學藝部選

=隨想= 九曲春情

中央保育 李信鴻

차이렌이 너무일직이 울엇나보다. 校門을 나서는 벗들은 제各己 이마에 손을얹고 氣分조케 느려진 버들수플 헤치고 綾紗幅가튼 푸른江물을 건너서 고무工場 煙突에서 품어노흔 石炭그림과 한낫이 비쳐준 아지랑이가 合奏하야 아물아물 거리는 봄의 直徑을 바라보며 봄물에 속사이고 봄을 노래하며 맘은들이 구비치는 明水를 더듬게하고 꼬쇄게하나니 主人몸을 회파람이 거리로 헤매고 분홍색든 동산은 香氣술을 감돌아 거름가는대로 발소길을 옴겨노와다. 너도봄드고 나도봄드란다. 陽地쪽 瑠璃窓미테서 단꿈

女의 무리 이모든 自然은그야말로自然그대로自然스럽다. 自然이 가저온 봄의舞臺는 아름다우면서 明朗하고도 華麗한 씨-슨이다. 華麗한 봄이길녀 그림자업고 매아리업는 좁은내가삼에도 방실방실 꼿치피고 울렁울렁 물결이친다. 봄의魅力은 靑春을 사로잡고 良心을 아시가며 잔디바틀 더듬게하고

더 떨곤떨곤한 방석을 까라노흔 보드라운모새우에 冊床물 동뎅이치고 無禮하게 주저안저다. 나는 햇비체 洗禮를 바 파-란 하날에 아롱진 아지랑이, 풀은 江우에 히거품이는 뽀-드 江가엔 봄볼씨는 색시네의 어지러운 빨래방맹이소리, 언덕 이쪽저쪽에서 꼿가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씨처오는 香氣로운 바람이 내옷자락에 부드치며, 鐵橋우에서 잠자리날개처럼 팔랑거리는 草綠저고리 분홍당치마 三三四四 또는雙雙이 흥어진로히 휘로머뭇거리는 靑春男女

나는 어머니품에서 자란어린이 지금은 어머니 품을떠난어린이 行尖 여미 어린이고 가마귀 까치 울음하는옛 이야기를 주고바들 어린이 내 한平生 어린이로서 사랑의보금자리를 茂盛히 꾸며보련다. 둥어매 두엇 무른들은 香내를 풍겨내는 복사꼿나무 그늘미에 내香鄕의 情緖를 고히 무더두리다 말못할 로맨스의 主人公이잇서 외롭고 구슬픈 호득이소리를 들릴때까지......。

『寂寞한 江물우에 한쪽각배가되어 뜬世上을 우스며 건너볼까요』 하고 속을은 내詩想을 면면 어나되푸리해다.

妓生인가 新婦인가는 잘 분간할수업서도 레우다남은 머리카락은 넘우 으살부고 입술그린 빼니비슨 붉다못해검을만한 열맞지못한 洋裝어두사람 내겨트로 사박사박 거려오더니 『봄바람은 무서워 處女의마음이 싱숭해지거든』 『아니야 失戀을 하엿나보지』 하며 내얼골을 엿보려한다 나는 뜻하지안흔 이遊擊만..까 시...에는 막상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지 안흘수업다. 길거리에서나 車間에서나 흔히 浮浪群들의 야지쫌이야 默過할수잇스나 오날바든 이 侮辱은 對照的男氣도 업스며서 餘地업시 경멸된 冊床물가슴가 차즈며 버들든 하로해의 한幅末괴 겨양은대 하로해의 그림자를 남겨두고 길어저가는내 練을 그림자를 이르켜 세웟다。

逝春

延專 李康雨

山허리를 기어올는 외조로운한 길섭에는
草食動物의 悲哀가 아물거리고
移民列車가 北으로 떠나간뒤
임자업는 무덤에 沈默을 삼키다
廢分의두레미 悲鳴을 뉘 알니
미지근한 물우에 不安의波紋이 일어
기다리든 봄을 다시보내는 마음
흙을 파보든 손꼿은 噴息하다
눈물의 香氣를 되디려마시라
生活의 軌道는 아직도 遼遠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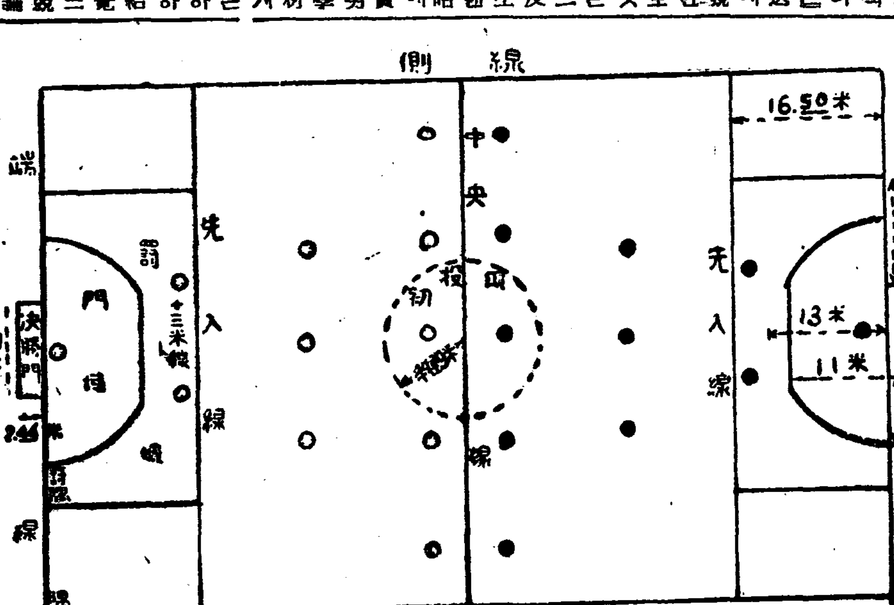
週間스포-츠

推獎할新球技 送球(핸드볼)를紹介함

東京 張泰瑩

【競技의由來】 送球는 獨逸送球聯盟이 創立되엇다 競技한것으로 獨逸에서는 오래前브터 이競技를하고잇섯는데 一九一九年에 獨逸의 體操敎師『카-루시린드』氏의 指導下에 近代的送球競技를 始作한것이嚆矢이다 一九二〇年에 伯林體操競技聯盟에서 正規의競技規則을 作成하고 一九二一年에는 全獨逸送球選手權大會가 『하-노바』에서 열리엇슬때에 『두샤빠라이』의 體操競技聯盟이 優勝하야 最初의 月桂冠을 獲得한바잇섯다 그리고 女子는 門球라는 名稱으로 送球와大槪同一한 競技를 一九一五年부터 始作하고 잇섯는데 送球競技는 主로 獨逸에서 流行하는競技이지만 墺太利 瑞西 佛蘭西 米國 匈牙利 白耳義等의 諸國에서도 以前부터 競技는하고잇섯다 一九二八年에 和蘭『암스텔담』에서 第九回國際오림픽大會가 開催되엇슬時에 國際送球聯盟이 創立되엇다 그리고 事務所는 獨逸『뮨헨』에 設置하고『랑크』氏가 總裁로被選되엇다 國際送球聯盟創立當時의 加盟國은 二十個國이엇스며 送球聯盟의 組織이엇는나라는 陸上競技聯盟 또는 體操競技聯盟等의 名義下에 加盟하고 純粹의 送球聯盟으로써 國際送球聯盟에 加盟한나라는 墺地利 一個國뿐이고 我國에서는 陸上競技聯盟의 名義로 加盟하엿다 一九二六年에 送球競技를 國際的으로 普及發達시키기 爲하야 國際的으로 統制된 競技規則을 定하는것이 必要하다는 主旨下에 國際陸上競技聯盟內에 送球의 國際的組織을 作成할 特別委員會를 設置하고 獨先國際送球規則을作成하기에 이르럿다 그리고『아무스텔담』오림픽大會를 機會로 國際陸上競技聯盟의 會議席上에서 國際送球聯盟의 設立을 承認하기로되어 第十一回伯林올림픽大會時부터 正式으로올림픽競技種目으로써 採用하게되엇다

我國의 送球競技는 『암스텔담』에서 日本陸上競技聯盟이 國際送球聯盟에 加盟하고 歸朝하엿슴에도 不拘하고 積極的으로送球競技와 助成發達을 計畫하지아니한 關係이지 조금도進步의形跡이 보히지안헛다 그러나 學校敎育에잇서서는 이것이 敎育的效果가잇는것을認定하고 大正十五年五月二十七日 要目改正時에 中學校及男子實業學校와 師範學校男女生徒共히 第二學年新敎材로써『핸드볼』의 名稱으로使用하고 또昭和十一年六月三日 要目改正中에 高等小學校 高等女學校及女子實業學校第四, 五學年 中學校及男子實業學校第二, 三學年 師範學校二部一, 二學年에 各各新敎材로써 手球의名稱으로 使用하게 되엇스며 學校敎育에 잇서서는 體操敎材로서 敎授要目에 配當하야長久한歷史가잇슴에도 不拘하고 一般的으로送球競技團體의結成을보지못함은 遺憾으로 生覺하고잇든中 昭和十二年十月十三日에비로소 我國最初의 送球競技大會를 擧行하기로되엇다 勿論制定된것이 아니고 硏究의材料로써 擧行하엿는데 參加校는文理大 慶應 靑山師範 日體等의四校가 參加한가운데열린바 日體가優勝하엿다 本競技大會가 擧行되엇에 따라 技術的으로 硏究할必要를 느끼고 明治神宮大會의 競技種目으로 加入되어 送球硏究의意味를가지고 奉納試合의 名稱으로써 競技를行하게되엇스나 地方의參加는 보지못하고 도다記의 四校로 試合을 行하엿다 이것이 我國最初의 明治神宮大會送球競技의第一回 全日本送球選手權大會인데優勝校는文理大엿섯다



【競技와競技者의員數】 送球競技는 各十一人의 競技者로된 二組가 對戰하는 競技이다 各組는 球를相對側의門에投入하기를 다투는것인데 球는 足을 使用하지 못하나 門番만은 발을가지고防禦함을 許하고잇다 組의編成은 五人의 前衛 三人의中衛 二人의後衛 一人의門番으로 되어잇스며 競技는 中央前衛가 競技場中央에서 初投함으로써 始作된다 球를相對側의門에 投入함에成功하면 一點을得하고 다시 하게된다 試合時間이 半分에 이르러 相對側의 初投는 得點한 相對側에 移行하야 陣營을交換하고得點이만흔組를 勝者로한다

【競技時間】 競技時間은 三十分式 二回로하고 中間에 十分의 休息時間을준다 女子及 十四歲 以下의 少年은 二十分式 二回로하고 十分의休息時間을준다

【投球와捕球】 球는 下腿及足部를除하고 腕,手,頭,胴,上腿,膝等으로써任意의方向에 投,打,突 或은 잡을수가잇스나 球를가지고三步以上 步行하거나 三秒以上球를保持하고잇거나 두번이어서 球를다치거나 下腿又는 足으로써 球를다치는것은 禁하여잇다 그러나 球를地面에떠려서 다시捕球하는것은 關係업지마는 捕球치안코 두번붓하는것은 禁하여잇다 以上의 反則은 相對便에 自由投球를준다

【相對에對한動作】 相對가球를 가지고 잇는것을 平手로서 때려서 떠려트리는것은 關係업지마는 兩手또는 주먹으로 奪取하거나 相對를 잡거나 밀치거나 뛰여들거나하는 亂暴한行爲를하는것은 禁하여잇다 以上에依한 反則은 相對便에 自由投球를 준다 그러나粗暴한 行爲를相對便『페날티-에리아』內에서 犯하엿슬時에는 罰隔投球를준다

【꼴에리아】는 門番만들어갈수잇고其他는一切 꼴에리아內에는 들어갈수업다 此에 依한反則은 攻擊側에서 犯하면 自由投球를 防禦側이 犯하면 罰隔投球를 주고 防禦側이 防禦의目的으로써 이것을 犯하면 十三米投球를 相對便에준다 反則의 有無는 足의 位置로써 判定된다

【어프사이드】 어프사이드에리아內에 잇는 攻擊側競技는 어프사이드에 잇고 어프사이드의位置에 잇는者가 競技에 關與할時에는 防禦側에 自由投球를준다 球를 가지고 어프사이드에리아內에 入한競技者는 어프사이드가 되지아니한다

【主審投】 危險한混戰 競技者의 顚倒 突發事件等으로 競技가中斷되엇슬時에는 主審者에 依하야 再開하게된다 主審은 競技가 中斷되엇슬時에 球를 垂直하게 地面에던진다 競技者는投球가 따지기까지 球로부터 大米以上의 距離에 잇서야한다

오케-레코-드 OKEH

新民謠 深夜深 李花子 12236
漫談 福德장사 金貞九
流行歌 感激時代 南仁樹
流行歌 달업는航路 李蘭影 12237

全鮮學童ヌリヱ懸賞

應募規定

아래그림에구레용이나구레파스나水彩어떤繪具라도조흐니彩色해주십시요。잘된作品에는左의賞品을드리겟습니다。

보낼곳… 大阪市浪速區水崎町 中山太陽堂內 クラブ齒磨 口腔衛生部

締切……五月廿日

賞品

壹等賞……金貳拾圓（愛國公債） 五名
貳等賞……金五圓（貯蓄債券） 十名
參等賞……プラトン萬年筆 三十名
四等賞……クラブ半練齒磨（一）クラブ學童齒刷子（組） 百名

★選外에는빠짐업시參加章으로서プラトン鉛筆三本式보내드리겟습니다。

★入賞者發表……六月上旬에新聞紙上에發表하고、作品展覽會……展覽會는六月上旬京城에서開催豫定

學校名
學年
住所
氏名

藥用 クラブ齒磨 (구라부)

NK-2

一二兩日間 パラマウント超特作 モロッコ（新版） ゲーリー・クーパー マルレーネ・デイトリッヒ 東寶東發特作 太陽の子 大日方傳・三井秀夫・逢初夢子 各社ニュース 大陸劇場

今週映畫 四月三十日ヨリ 東日・大每・朝鮮・パテー・RKOニュース 高麗映畫社 林仙圭原作 李明雨監督 東洋劇場映畫部…協同製作 「사랑에속고돈에울고」 全發聲 劇團靑春座員總動員 コロムビア社特作日本版 地に潛るギャング ボール・ケリー ロザリンド・キース 主演 京城撮影所作品 李泰俊原作 脚色・監督…羅雲奎 五夢女 出演 盧載信・尹逢春・金一海・崔雲峰 第一劇場 四丁目 東洋興業直營 一七五五番

映畫は日活 廿八日より五日間 日活京都超特作 マキノ正博監督 浮名小路 原健作 主演 轟夕起子 何が彼女をそうさせたか…… 愛する男の幸福の為に身を犠牲にした女 倍樂部

東洋劇場 電話③ 2154 3640 劇團 靑春座公演 五月一日부터 「거리의牧歌」三幕五場 「結婚非常時」一幕 特別贊助出演 世界的舞踊家 エリアナ・パヴロヴァ舞踊會 五月六七日(土、日)兩夜 午後七時半開幕 アレクセイ・パヴロヴァ ヴァイオリン

松竹映畫 キネマ 廿九日より五日間 日本の魂 伊奈精一監督 父よあなたは強かった 佐分利信・上原謙・三浦光子 忠次旅日記 各社ニュース